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분명한 선택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 찾아오는 하나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포기해야함을 동반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들은 모이고 모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선택 없이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또한 하나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해야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할 것을 나열한 하나의 보기 같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포기라는 것이 뒤따르듯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곧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쾌락을 포기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선택 앞에서 주저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선택하고, 하느님을 선택해야함을 알고 있었지

만, 그들은 현실적인 유혹 앞에서 망설였고, 때로는 하느님이 아닌 인간적인 복락을 빌어준다고 믿었던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했고, 각종 향락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하느님의 징벌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 율법을 관통하는 정신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택 앞에서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상의 것, 곧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이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혹시 우리는 세속의 가치와 하느님의 가치 사이에서 오가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택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함'을 이야기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느님을 선택함은 '세속의 가치를 포기해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보장받은 이들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야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율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이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쾌락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는 이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성동 본당 보좌 박지훈 디모테오 신부

전 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당신을 따름에 있어 우리 자신들의 마음가짐과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개선하도록 자세하면서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항상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생활 모습은 주님의 가르침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정성되이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본기도

†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집회서 15장 15절-20절

안 내 : 집회서의 저자는,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제2독서 : 코린토 1서 2장 6절-10절

안 내 :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롭고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당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5장 17절-37절

강　　론 : '분명한 선택'(1-2쪽)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영성체 후 묵상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하지마라, 혹은 이렇게 살아야한다.'라는
강요 아닌 강요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라서, 혹은 기성세대의 고리타분한 말씀이라고만 여기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실행하기에 무척이나 어려운 말씀들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어려울지라도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에
지금도 우리는 노력합니다.

<침묵>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은 것처럼
어려운 삶의 지침이기에 우리에게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며 나날이 성숙해지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9번 '주를 따르리'

※ 공소사목 성금

김유덕님	*40,000*원	성유공소	*100,000*원
정성수님	*50,000*원	김현옥님	*60,000*원
외어공소	*100,000*원	이영순님	*50,000*원
성귀중님	*200,000*원	이순구님	*3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34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2017년 대신학교 입학생
· 유환서 루도비꼬(가은 본당)
※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지구 구역·반장연수
· 안동 · 의성지구 : 2월 12일(주일)
  - 교구청 1층 강당
· 문경지구 : 2월 19일(주일)
  - 점촌동 성당(2월 14일까지 신청)
· 상주지구 : 2월 26일(주일)
  - 계림동 성당(2월 21일까지 신청)
· 북부지구 : 3월 5일(주일)
  - 휴천동 성당(2월 28일까지 신청)
· 동해지구 : 3월 12일(주일)
  - 영해 성당(3월 7일까지 신청)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안동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발대식 및 연수
· 일시 : 2월 14일(화) 10:00 - 16: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1만원
· 대상 : 본당 여성단체 회장단(성모회장단, 자모회장단 등)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 안동교구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계획 : 1년에 4회 실시 예정)
· 일시 : 2월 18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준비물 : 미사준비
· 신청 : 2월 15일(수)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2017년 예비신학생모임 개강미사
· 일시 : 2월 18일(토) 14: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2017년도에 예비신학생으로 등록한 학생 및 부모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공소(농민사목)수녀, 선교사 모임
· 일시 : 2월 21일(화) 09:00 ~ 19:00
· 장소 : 교구청 09:00 집결
· 준비물 : 미사준비, 간편한 복장
· 신청 : 2월 16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중고등부 교리교사학교
· 일시 : 2월 18일(토) 13:30 - 19일(주일) 15:3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안동교구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신임, 재임)
· 회비 : 45,000원
· 준비물 : 성경, 미사준비, 세면도구, 필기구, 두레판(1, 2월호)
· 신청 : 2월 13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교구 성령묵상회
· 일시 : 2월 24일(금) 14:00 - 26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회비 : 10만원
· 신청 : 2월 19일(주일)까지 성령봉사회(010-8447-0111)

■ 청년 음악 피정
· 일시 : 2월 26일(주일) 10:00 - 21:00
· 장소 : 목성동주교좌성당
· 강사 : 생활성가 솔로 가수들로 이뤄진 "희망을 노래하는 찬양팀" J-Fam(제이팸:Jesus Family)
· 대상 : 청년이면 누구나 환영!
· 회비 : 1인 10,000원
· 문의 : 사목국(858-3114~5) 김효은 로사리아(010-2121-9250)

■ 2017년 아시아 청년대회(AYD) 참가자 모집
· 일시 : 7월 28일 - 8월 10일
· 장소 : 인도네시아
· 참가자격 :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17-30세 (실제나이) 청년
  17세-18세(고1-고2) 3명 선정,
  20세-30세 2명 선정
· 참가비 : 150만원 예상
· 참가인원 : 5명(신청자에 한하여 교구에서 면접 후 선발)
· 신청 : 2월 12일(주일)까지
· 문의 : 안동교구 사목국(858-3114~5)
※ 교구 홈페이지(www.acatholic.or.kr)에 자세한 일정과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 농은수련원 어르신 피정
· 주제 : 말씀과 함께하는 은빛청춘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일시 : 2월 17일(금)15:00-18일(토)13:00
· 피정비 : 1인 6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15쌍)
· 일시 : 3월 18일(토)-19일(주일)
· 피정비 : 부부 12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4장
혼인의 사랑

사랑은 친절합니다

93. 바오로 성인이 그 다음으로 사용한 단어는 '크레스튀에타이'(*chrestéuetai*)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선한 사람, 곧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레스토스'(*chrestós*)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앞의 동사와 긴밀한 대구를 이루며 그 의미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앞의 동사인 '참고 기다리다.'가 완전히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활동, 곧 다른 이와의 활발하고 창의적인 상호 작용이 따르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사랑이 다른 이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에 "친절합니다." 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4. 이 글 전체에서, 바오로 성인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어의 '사랑하다'라는 동사(AHeB)에 담긴 뜻인 '선행을 하다.'의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의 말대로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은 그 모든 풍성한 결실을 보여줄 수 있으며 내어 주는 행복, 곧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내주고 봉사하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고귀함과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95. 이어서 바오로 성인은 사랑에 반대되는 '젤로이'(*zelói,* '시기' 또는 '질투')가 의미하는 태도를 거부합니다. 이는 사랑은 다른 이의 행복을 샘낼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도 7,9; 17,5 참조). 시기는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이 잘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하지

만, 시기는 우리를 우리 자신 안에 가두어 둡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이의 성공을 존중하며, 다른 이를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를 질투라는 씁쓸한 감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참된 사랑은 모든 이가 저마다의 삶에서 서로 다른 선물을 받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이 그들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96. 다시 말해서, 사랑은 십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탈출 20,17). 사랑은 우리가 모든 이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며 그들을 올바로 존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1티모 6,17)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음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제 마음에 뿌리내린 이러한 사랑으로 저는 어떤 이는 지나치게 부유하지만, 또 다른 이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불의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저의 마음을 움직여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작은 기쁨이나마 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이는 질투가 아니라 평등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97. 이어지는 그리스어 단어 '페르페뤼에타이'(*perpereúetai*)는 자만, 곧 현학적이며 다소 공격적인 태도로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많이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피지오우에타이'(*physioúetai*)라는 단어는 '페르페뤼에타이'와 매우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랑이 오만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곧 이 단어의 본래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집착하는 것과 현실 감각의 상실이라는 더욱 미묘한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더 '영적'이거나 '현명'하다고 여기어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 동사를 다음의 경우에서도 사용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1코린 8,1). 어떤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약한 이들을 이해하고 돌보며 감싸 안아 주는 사랑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우쭐거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데에 사용됩니다(1코린 4,18 참조). 사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참된 '힘'이 아닌 공허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1코린 4,19 참조).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마음의 키

박월수 아녜스
(안동가톨릭문인회)

안동 신시장 근처에 강아지 털을 깎이러 갔습니다. 애견 미용실 앞에 처음 보는 골동품 난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늙수그레한 영감님이 척 보기에도 자신의 나이보다 더 오래 묵어 보이는 물건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전을 펼친 사람 같지 않게 주름진 얼굴엔 자부심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떨어지기 싫어하는 강아지를 떼어놓고 괜찮은 게 있나 둘러보았습니다. 꽤 값나가 보이는 잘 생긴 화로 옆에 꾀죄죄한 놋양푼 하나가 주눅이 든 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뜬금없이 궁색해 보이는 그 그릇이 탐이 났습니다. 슬쩍 놋양푼의 값을 물어보니 비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나온 여윳돈이 별로 없던 터라 조금만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영감님에겐 손톱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 값이면 잘 사는 거라며 거들었습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하자 카드도 가능하다던 영감님이 기계가 고장 났다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구시장에 있다는 거래은행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골동품 난전에 눈멀어 있는 동안 어린 강아지는 첫 경험을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주인도 없이 혼자서 털을 민 것입니다. 앙탈을 부리다 지친 녀석은 제가 들어서자 유리 너머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서러운 표정의 눈을 마주보기가 미안했습니다. 그까짓 놋양푼이 뭐라고 말 못하는 어린 녀석을 혼자 버려뒀나 싶었습니다. 품에 꼭 안아주는 걸로 미안함을 대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맛난 간식을 먹은 녀석은 기분이 좋은지 저 혼자 잘 놉니다. 마음이 다시 놋양푼에게로 옮아갑니다. 어서 본래의 빛깔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냄새가 고약한 초록색 약을 칠하고 양푼을 힘주어 닦습니다. 늘 말썽인 팔꿈치가 제발 그만하라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오래되어 그런지 아무리 닦아도 환하게 빛이 나지 않습니다. 양푼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귀퉁이가 아주 조금 깨어져 있습니다.

제가 깎아달라고 했을 때 수더분해 보이던 영감님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값을 너무 싸게 불러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대신 그릇 닦는 약을 선심 쓰듯 끼워주었습니다. 닦아서 팔면 두 배는 값을 더 쳐서 받는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때 의심을 해 봤어야했습니다. 영감님은 오랜 경험으로 그릇에서 나는 소리만 듣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윤이 나게 닦으면 흠도 눈에 잘 띄게 마련이어서 닦아서 팔지 않은 것입니다.

기껏 깨어진 그릇을 사려고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를 서럽게 했나 싶습니다.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가던 일을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앞 뒤 생각 없이 덜컥 사 버린 제 탓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놋양푼 한 귀퉁이가 깨어지도록 사용했으니 제대로 된 골동품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가르침도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놋양푼에 음식을 담아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잘 닦아서 다락방 화로 곁에 두고 집을 꾸미는 용도로 쓸 요량이었습니다. 그러니 살짝 깨어져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놋양푼 가득 잘 익은 사과를 담습니다. 붉은빛이 노란 그릇 안에서 탐스럽습니다. 은은한 사과 향을 품은 그릇이 참으로 우아해 보입니다. 혼자서 털을 민 강아지도 다시 보니 조금은 어엿해 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키도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습니다. 다음 번 애견미용실을 찾을 땐 혹시라도 그 영감님이 나왔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귀한 경험을 하게 해준 분이니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